

연구보고 06-R01-2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분석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유성렬(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 분석
-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흡연이나 음주 경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그리고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단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 도출

2. 주요 연구내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학교 2학년일 때 14.8%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3 때(2차년도)는 11.4%, 고 3때(3차년도)는 12.1%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3년간에 걸쳐 적어도 한 해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8%였음.
- 아르바이트 기간의 경우 한 달 이상 일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차년도에 4.5%에서 3차년도 18.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형태로 변했음을 보여줌.
-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제반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가구 소득이 매년 낮게 나타났음.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을 보여 줌.

-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과 제반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1차년도에는 아르바이트 직종과 흡연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3차년도에 이르러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들 가운데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12.6%인데 반해, 기타 직종의 일을 한 학생들 중에는 35.8%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음주 경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성인들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성인의 행위를 모방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제반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과 흡연 및 음주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 아르바이트 직종, 지속기간, 주당 근무일수 및 일일 근무시간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 그러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아르바이트 직종 및 노동강도는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경험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특히 전년도의 흡연이나 음주 경험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중3 때 학업성적에 대해서 중2 때의 아르바이트 경험과는 달리 중3 때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다른 모든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여주었음. 반면, 고3 때의 학업성적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치는 효과는 다른 영향 요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확인되지 않았음.

3. 정책제언

-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부터 긍정적인 직업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치 있는 일도 경험하고 일정한 보상도 주어지는 연방정부 및 그 산하 기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학생교육·고용프로그램(SEE)을 소개하였음.
- 이와 동시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업소 중 모범적인 업소를 발굴하여 홍보해 청소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업소가 좋은 업소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방안(예를 들면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곳 캠페인’)도 제안하였음.
- 이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것만큼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 및 진로지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 노동부의 「청소년워크넷」 사업과 전국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나아가 장기적으로 청소년단체들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 결과 일부 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음.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진로지도와 더불어 직업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목 차

I. 서 론 : 문제제기

II. 이론적 논의

-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의 변화 10
-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영향 13
- 3. 아르바이트와 학업성적과의 관계 15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23
- 2. 변수 및 연구모형 24

IV. 분석결과

-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 31
-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 40
 -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40
 -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과의 관계 47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와의 관계 51
 - 4)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시간과의 관계 53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인에 대한 다변량분석 56
 -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결정요인에 관한 다변량분석 ... 56
 -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에 관한 다변량분석 60
- 4.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의 영향에 대한 중단분석 67
 - 1) 아르바이트에 미치는 학업성적의 효과분석 67
 - 2)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분석 70
 - 3) 고교 진학경로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효과분석 73

V. 결론 및 정책제언

- 1. 연구 요약 77
- 2. 정책적 제언 84

참고문헌 86

표 목차

<표 IV-1>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31
<표 IV-2> 조사 기간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32
<표 IV-3>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	33
<표 IV-4>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직종	34
<표 IV-5>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	35
<표 IV-6>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주간 근무일수	36
<표 IV-7>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시간	37
<표 IV-8>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시간당 보수	37
<표 IV-9>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	38
<표 IV-10>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과의 관계 (평균)	39
<표 IV-11>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41
<표 IV-12> 아르바이트 경험과 가계 소득의 차이에 대한 t-검증	42
<표 IV-13>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버지 교육정도의 차이에 대한 t-검증	42
<표 IV-14> 아르바이트 경험과 어머니 교육정도의 차이에 대한 t-검증	43
<표 IV-15>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 경험과의 관계	44
<표 IV-16> 아르바이트 경험과 음주 경험과의 관계	45
<표 IV-17>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아존중감	45
<표 IV-18>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신감	46
<표 IV-19> 아르바이트 직종과 성별과의 관계	48
<표 IV-20> 아르바이트 직종과 흡연 경험과의 관계	48
<표 IV-21> 아르바이트 직종과 음주 경험과의 관계	49
<표 IV-22>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와 흡연경험과의 관계	51

<표 IV-23>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와 음주경험과의 관계	52
<표 IV-24> 아르바이트 일일근무기간과 성별과의 관계	53
<표 IV-25> 일일근무시간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SES)과의 상관관계	53
<표 IV-26> 아르바이트 일일근무시간과 흡연 경험과의 관계	54
<표 IV-27> 아르바이트 일일근무시간과 음주 경험과의 관계	55
<표 IV-28> 2차시기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8
<표 IV-29> 3차시기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8
<표 IV-30> 흡연에 대한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	61
<표 IV-31> 음주에 대한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	62
<표 IV-32> 흡연에 대한 아르바이트 직종의 영향	63
<표 IV-33> 음주에 대한 아르바이트 직종의 영향	64
<표 IV-34> 흡연에 대한 일일 근무시간의 영향	65
<표 IV-35> 음주에 대한 일일 근무시간의 영향	66
<표 IV-36> 중 3 때 아르바이트 경험 요인 분석	68
<표 IV-37> 고 1 때 아르바이트 경험 요인 분석	69
<표 IV-38> 중 3 때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효과 분석	71
<표 IV-39> 고 1 때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효과분석	72
<표 IV-40> 고교 진학 경로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효과 분석	73

I. 서론 : 문제제기

I. 서론 : 문제제기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 혹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모든 생활이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수의 중·고교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 밖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성인들의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학계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199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이철위 외(2000)는 중·고등학생의 시간제 근로와 관련된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전개하였고, 이형하·이용교(2002)의 연구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이광호, 2001).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상의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이 횡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결과 등은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분석을 위해 기초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의 출발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의 두 번째 흐름은 아르바이트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 비해 그리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문성호(2003)는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음주, 흡연, 문

제행동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고, 특히 주당 노동 시간과 지속 정도도 비행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횡단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과 비행 경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는 달리 김기현(2003)은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청년패널의 2개년도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주당노동시간과 학교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경상 외(2005)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패널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두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선택효과의 문제이다. 물론 이경상 외(2005)의 연구는 2차년도의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1차년도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아르바이트 경험이 지니는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를 접근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즉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과는 별도로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 아르바이트가 주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종단자료이다.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 집단을 계속 추적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패널조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행요건이다.

2003년에 중학교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진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3년간 자료를 바탕

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탐색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영향과 더불어 아르바이트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의 변화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영향
3. 아르바이트와 학업성적과의 관계

II. 이론적 논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시각은 학생 신분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와 미래의 직업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견해로 대별된다. 전자는 청소년을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며 발달단계로 보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반면, 후자는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사회적 참여의 일환으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몇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는 전자의 시각보다는 후자의 시각으로 이행하는 근본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많은 학생들은 이제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시기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진로·직업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 진출이전에 직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학생교육고용프로그램인 SEE(Student Educational Employment)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줌으로써 학생시절에 가치 있는 일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학교-기업간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원화제도(dual system)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두 번째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착취가 불법화되고 유엔(UN)의 아동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과거처럼 광범위하게 청소년에 대한 노동착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청소년들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회계층별로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사회계층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모든 사회계층의 자녀들이 높은 수준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모들이 청소년 시기에 일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Singh and Ozturk, 2000: 67).

세 번째는 청소년을 더 이상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하고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참여를 장려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연합(UN)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1985년 ‘청소년분야의 향후계획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Further Planning and Suitable Follow-up in the Field of Youth)’, 2000년 ‘청소년을 위한 세계 실행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WPA)’ 등을 채택하여 참여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

그러나 여전히 전자의 시각이 유효하다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의 변화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기존 연구의 보고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약 30% 안팎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철위 외(2000)는 조사에 참여한 중학생 가운데 23.5%가, 고등학생 중에는 35.3%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김기현(2003)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에서 20.3%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우선 조사 대상이 상이하여 아르바이트 참여 정

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Mortimer와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시간제 근로 경험에 대한 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들은 미네소타 주의 세인트 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가운데 1,036명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시간제 근로 경험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 남학생들 가운데 40%가 조사 당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수치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에 이르면 58%로 증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9학년 학생 가운데 63%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2학년에는 무려 70%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Finch, et al., 1997).

아르바이트 직종에 관하여는 9학년의 경우 아이 돌보기(baby-sitting)나 정원 정리 혹은 눈 치우기(yardwork) 등의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남녀 각각 35%, 72%였으나, 이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12학년에는 남학생은 3%, 여학생은 4%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공식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노동시간의 경우도 9학년에는 남학생은 평균 11.3시간, 여학생은 평균 11.5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2학년에는 각각 21.8시간, 19.8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청소년 경우 12학년이 됨에 따라,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로 가까이 갈수록 노동시장에의 참여 형태가 성인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연구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경상 외(2005)의 연구에 일부 나타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가운데 14.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듬해에는 11.4%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르바이트 직종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 79.2%는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돌리기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중3의 경우에는 66.2%가 전단지 돌리기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서빙, 카운터, 배달 등의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은 9.6%에 불과하였으나, 이듬해에는 20.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단지 돌리기가 마치 미국의 아이 돌보기와 정원 정리 등과 같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거쳐 가는 직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당 근무일수의 경우 73.6%에 달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3일 이하로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 수치는 66.3%로 감소하였고, 일일 근무시간도 3시간 이하로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67.4%에서 57.9%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실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학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의 경우 직종이나 주당 근무일수와 일일 근무시간에서 시간제 근로에 몰입하는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 직종이나 작업 강도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 경향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경상 외(2005)의 연구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물론 다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표본의 상이성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 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영향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별할 수 있다(유성렬, 2005). 첫째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Greenberger와 Steinberg(1986)는 청소년들이 갖는 직업의 대부분이 별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 직종에 국한되어 있으며,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경험과 관련한 다양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Mortimer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나 강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나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에 소홀해 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ortimer, et al., 1992).

청소년 아르바이트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도 이러한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문성호(2003)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과 지속 강도는 청소년의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기현(2003)은 주당노동시간이 학교 성적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경상 외(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다양한 학교부적응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측정된 노동 유형은 무단결석, 흡연, 음주, 패싸움, 절도, 징계경험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노동 강도는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가족·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 등의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이 모든 생활 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게다가 작업장에서 성인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흡연이나 음주 등 성인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모방하는 경향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등이 높

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성급한 발달(precocious development)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teinberg and Dornbusch, 1991).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두 번째 시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인의 특징인 직업역할의 수행을 위한 선행 경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직업역할의 수행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기술,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임감의 습득, 역할 기대의 수행, 시간 관리 등은 성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로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실제 D'Amico(1984)는 적절한 양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교 중퇴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고하였고, Steel(1991)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졸업 후 직업을 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시각은 아르바이트 경험 자체보다는 아르바이트 작업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혹은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아르바이트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Mortimer and Finch, 1996).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소질과는 무관한 직업이나 미래 계획과 관계가 없는 직종에서 장기간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lenberg and Bachman, 1993).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에는 성인들과 달리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hanahan, et al., 1991). Marsh(1991)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 성적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성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현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Kohn과 Schooler(1983)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경험은 학습일반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기가 자아관 형성이라는 중대한 과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의 직업 경험은 청소년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직업 경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와 함께 종단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영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어떤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출발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기현(2003)과 이경상 외(2005)의 연구에서 2차년도 경험 설명하는 과정에서 1차년도 경험을 통제함으로써 선택효과를 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립변수로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아르바이트와 학업성적과의 관계

아르바이트의 영향과 관련 가장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는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

우 좋은 성적이 좋은 직업을 얻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일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 학업 성적을 높이려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디아미코와 베이커(D'Amico and Baker, 1984)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취업은 학생들의 중퇴 가능성을 낮추며 평균적인 수준 보다 높은 학업 성취를 가져다준다고 지적하였다. 생애 과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이러한 다중 역할 수행 경험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숙제나 특별활동 등 학업 참여, 나아가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시간제 취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쉬(Marsh, 1991)는 종단 분석을 통해 가족 배경 요인들과 이전의 학업 성취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시간제 취업이 현재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아르바이트 참여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단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곧,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근로 경험이 주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Mortimer, Shanahan and Ryu, 1994; Mortimer and Finch, 1996; 유성렬, 2005).

두 번째로 아르바이트의 노동강도에 따라 보완적인 해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입장도 있다. 곡선형 효과(curvilinear effect) 가설이 대표적인데(Quick, Keith and Quick, 2001; Singh and Ozturk, 2000), 이것은 종단면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이 가능해지면서 제기된 것으로 가족배경이나 이전의 학업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보다는 약간(대략 주당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나며 그 이상의 취업시간을 할애한 학생들의 경우 낮은 학업 성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곧, 아르바이트는 학업 성적에 부(-)의 효과를 갖지만 이는 제한적으로만 사실이며 약간의 아르바이트는 학업 성취에 정

(+)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취업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에서 있어서 구조적 제약요건을 밝혀내려는 입장도 있다(Entwisle, Alexander and Olson, 2000). 이것은 노동 공급측면에서 학교 특성이나 교육 체계상의 특성에 따라, 노동 수요측면에서 시간제 취업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제 취업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차별적인 시간제 일자리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간제 취업과 학업 성취간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며 상류층 학교(middle class school)인가 하류층 학교(labor class school)인가에 따라서 둘 간의 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나아가 한 사회의 교육 체계 (educational system)가 사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보다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조직공간(organizational space)인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이 학교에서 전수되는 직업 교육(vocational education)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자격 공간(qualificational space)인가에 따라서 둘 간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Maurice, Sellier, and Silvertre, 1982).

이와 관련 OECD 보고서(OECD, 2000: 182)에서 15-19세 연령대의 재학 중 고용 비율은 호주가 39.7%로 가장 높고 영국이 36.2%, 미국이 31.7%, 캐나다가 31.6%로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매우 높은 재학 중 고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프랑스가 0.4%, 이탈리아가 0.8%, 독일이 2.0%로 매우 낮은 재학 중 고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상이한 교육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도제식 교육과 학교 기반 직업교육(school-based vocational education)의 비율이 매우 높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권 국가들은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간 제도적 차이는 학업성적 등에 대한 아르바이트의 효과를 단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론적 논쟁과는 달리 대부분 아르바이트 참여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문성호, 2003; 김기현,

2003; 유성렬, 2005; 이경상·유성렬·박창남, 2005). 이 연구들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문제행동이나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가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견해는 대략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는 일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이다.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일은 전단지 돌리거나 스티커 붙이기로 29.4%에 이르렀고 일반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이나 서빙을 하는 업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게다가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이나 임금삭감 등의 10%를 넘고 있으며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4.3%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경쟁, 사교육의 과잉팽창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제한된 시간을 학업 이외에 투자하는 것은 학업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기현(2003)에 따르면, 인문고 학생의 경우 실업고 학생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3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고 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는 진학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세 번째는 부모나 교사 등 우리나라 기성세대의 인식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 중 24%가 부모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63%로 긍정적인 인식보다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특징들은 아르바이트 참여가 학업성적 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종단 자료 분석을 통한 검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단면 연구는 아르바이트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존재한다(Singh and Ozturk, 2000). 종단면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학업 성적이 변했는가를 검토할 수 있게 해주며 어떤 효과가 얼마동안 지속되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업 성적에 관한 아르바이트의 영향뿐만 아니라 낮은 학업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더 일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낮은 학업 성적이 아르바이트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라면 학업 성과 아르바이트간의 부(-)적 상관관계는 재해석될 여지가 있게 된다. 곧 이전의 학업성적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의 효과는 과잉추정된 것일 수 있다.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2. 변수 및 연구모형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KYPS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3년 4월 1일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본을 뽑은 3,697명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이다. 설문지는 학생용과 부모용으로 나누어진다. 학생 설문은 1차 조사에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부터는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모용 설문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본추출과정은 우선 12개 특별시·광역시·도별로 층화한 후, 각 층별 중학교 2학년 학생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하여 학교수를 결정하였다. 이 때 1개 학교에서 1개 학급 전원을 조사하므로, 12개 특별시·광역시·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기준으로 추출될 학교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추출방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697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차년도 자료수집은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청소년들의 경우 4인의 면접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집단면접조사가, 부모의 경우에 가구의 사회경제적지위(SES)에 한해서 전화면접조사가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결과 13,697명의 청소년 및 부모가 응답하였으며 이 표본을 바탕으로 이후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2차년도 자료수집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집단면접조사를 했던 1차년도와 달리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부모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전화면접조사를 하였다. 2차년도 자료수집결과 해외유학 및

이민, 거절,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조사를 실패한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응답한 사례수는 청소년은 3,211명, 부모는 3,122명이었다. 3차년도 자료 수집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 2차년도와 동일하다. 자료수집결과 청소년 3,125명, 부모 3,081명이 응답하였다.

2. 변수 및 연구모형

이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수집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 아르바이트 직종,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주간 근무일수, 일일 근무시간, 시간당 보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아르바이트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3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제반 경험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t-검증, 교차분석, 상관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들로 성별, 가계 소득,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 흡연 및 음주 경험,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을 선정하였다. 가계 소득과 부모의 교육정도는 가구용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계소득은 만 원 단위로 측정된 가구 월평균 소득으로, 부모의 교육정도는 ‘무학’에서 ‘대학원 박사’까지 8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흡연 및 음주 경험은 지난 1년간의 흡연 혹은 음주 여부에 대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범주변수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때때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의 6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한 값을 높은 점수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도록 코딩한 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자신감은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의 3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세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아르바이트 직종, 참여 횟수, 지속기간, 주간 근무일수, 일일 근무시간과 흡연 및 음주,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과 관계에 대한 다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변인들의 영향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는 3차년도에 조사된 흡연 및 음주 경험,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3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독립변수로, 2차년도의 종속변수 값을 주요 통제변수로 하는 분석을 통해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의 분석에서 성별,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정도 및 반석차는 통제변수로 설정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특히 반석차는 수치가 클수록 학업 성적이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도록 측정되었다.

네 번째로 이 연구는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적과 아르바이트의 관계의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첫째, 아르바이트 경험에 미치는 학업성적과 가족배경의 효과이다. 먼저 학업성적이 아르바이트 경험의 강력한 설명요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가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가족배경의 효과에 대한 추정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는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학업성적이 통제된 상

태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곧 학업성적에 대한 아르바이트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엄밀한 의미에서 아르바이트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 청소년패널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어떤 고등학교로 이행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연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실업고 대신 인문고나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로 이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추정해 보았다.

학업성적과 아르바이트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성별, 거주지역, 가족배경 변수들, 학업성적, 아르바이트 참여, 지위비행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먼저 거주지역 변수는 농촌지역 거주 유무로 측정하였다. 청소년패널자료는 청소년들의 주소지를 시군구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토대로 농촌지역 거주 유무를 측정하였다.

가족배경 변수들로는 결손가정 유무, 아버지의 교육과 어머니의 교육, 사교육비, 아버지의 직업, 형제자매수 등이다. 결손가정 유무는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 않은 경우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은 교육년수로 측정하였으며 졸업이 아닌 경우는 절반값을 부여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로 측정하였으며 형제자매수는 본인을 제외한 형제자매수로 측정하였다.

학업성적은 중학교 2학년 때(2003) 성적, 중학교 3학년 때(2004) 성적, 고등학교 1학년 때(2005) 성적 등이며 이에 대한 측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반성적을 합산해 최하, 하, 중, 상, 최상 등 5분위로 전환해 사용하였다. 청소년패널자료에서는 학생의 자기보고(self-report)에 기초한 반등위, 학교등위, 전국규모 모의성적 등위 및 각 과목별 반성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국규모 모의고사 성적은 결측치가 절반을 넘고 반 및 학교 등위 점수는 평균 이상의 값이 높게 나타나 정규분포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과목별 성적점수를 사용하여 학업성적을 측정하였다(박병진, 2005).

아르바이트 경험은 중학교 2학년 때(2003) 아르바이트 경험, 중학교 3학년

때(2004) 아르바이트 경험, 고등학교 1학년 때(2005) 아르바이트 경험 등이며 조사 당시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 파트타임)를 한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학업 성취에 관한 분석 모형에서 아르바이트는 주로 두 가지로 측정되고 있다.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로 아르바이트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경험 강도로 측정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 강도는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패널조사는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아르바이트 한 기간,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참여 강도에 따른 차이보다 변별력이 더 크며 선행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약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긍정적이라는 곡선형 효과 가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김기현, 2003).

한편, 중3에서 고1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학업성적 변수 외에 진학경로변수를 사용하였다. 진학경로변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교유형에 따라서 ① 인문고, ②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포함), ③ 실업고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경우 예술고 및 체육고, 미진학자, 해외유학 등 경로구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례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밖의 변수로는 개인적 학습시간, 교내 경시대회 수상 여부 등 학업성취 관련 변수들과 흡연 유무 및 음주 유무 등 지위비행에 관련된 변수들이 추가되었다.

이 연구의 연구모형은 ① 아르바이트 경험 모형과 ② 학업 성적 모형, 그리고 ③ 진학경로 모형 등이다. 아르바이트 참여 모형은 중학교 3학년 모형과 고등학교 1학년 모형으로 구성되며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이다. 이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이전년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중3 모형은 중2, 고1 모형은 중3), 이전년도 학업성적, 성별과 거주지역(농촌지역 유무), 결손가정 유무,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사교육비, 형제자매수 등 가족배경 변수들과 이전년도 개인적 학습시간, 이전년도 교내 경시대회 수상 여부, 이전년도 흡연 유무, 이전년도 음주 유무 등의 지위비행 변수들이다.

학업성적 모형 역시 중학교 3학년 모형과 고등학교 1학년 모형으로 구성되며 학업성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 모형(OLS regression model)이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아르바이트 경험 모형과 동일하나 당해연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변수가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학경로 모형은 실업고 진학을 기준범주로 하여 ① 인문고 진학, ② 특수목적고 진학(자립형 사립고 포함)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이다. 이 경우에는 진학 이후에 당해연도의 아르바이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업성적 모형과는 달리 당해 연도의 아르바이트 참여 유무 변수는 제외되었다.

IV. 분석 결과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
4.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의 영향에 대한 다변량 분석

IV. 분석결과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

본 절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제반 경험의 변화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1>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경험여부 \ 조사시기	1차시기 (중2)	2차시기 (중3)	3차시기 (고1)
있다	510 (14.8)	364 (11.4)	379 (12.1)
없다	2,939 (85.2)	2,824 (88.6)	2,741 (87.9)
계	3,449 (100.0)	3,188 (100.0)	3,120 (100.0)

1) ()안은 백분율임

<표 IV-1>에 의하면, 조사 첫해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3,449명 가운데 14.8%인 510명이었으나,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11.4%로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12.1%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조사된 수치보다 낮은 편인데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는 질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은 응답 시점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가로 구성되어 있다(이철위 외, 2000). 그러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가로 묻고 있어 2차시기와 3차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 수치는 2004년과 2005년의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나타내는 수치

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가운데 이제까지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산출해야 하며, 이 결과는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 조사 기간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구 분	빈 도 (백분율)
3년 모두 경험 있음	56(1.9)
2년 경험 있음	203(6.7)
1년 경험 있음	578(19.2)
3년 모두 경험 없음	2,175(72.2)
계	3,012(100.0)

<표 IV-2>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학생은 3년 동안 아르바이트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한 3,012명 가운데 837명으로 27.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된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3년 동안 매 해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9%로 비교적 적은 수의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이래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중 한 해에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9.2%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약 7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청소년의 경우 노동시장에의 참여 정도가 아직은 간헐적인 수준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미국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inch, et al., 1997).

<표 IV-3>은 각 조사 시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시기의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차 시기에 3회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80.7%였던 반면, 3차 시기에는 87.3%로 증가하였

다. 이와 함께 6회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1차 시기의 8.6%에서 3차 시기에는 5.1%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형태가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3>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

조사시기 참여횟수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1회	251(50.3)	206(57.9)	212(59.9)
2회	96(19.2)	51(14.3)	61(17.2)
3회	56(11.2)	49(13.8)	36(10.2)
4회	24(4.8)	11(3.1)	16(4.5)
5회	29(5.8)	16(4.5)	11(3.1)
6회 이상	43(8.6)	23(6.5)	18(5.1)
계	499(100.0)	365(100.0)	354(100.0)

3년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아르바이트 직종의 변화이다(<표 IV-4> 참조). 1차년도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약 80%정도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직종이 전단지 돌리기라고 응답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종을 전단지 돌리기와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타 직종으로는 서빙/카운터/배달, 건설/공장노동, 주유소, 판매, 기타 배달 등이 포함되는데, 전단지 돌리기와 비교하여 이러한 직종이 갖는 특성은 성인의 직접적인 감독과 지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많으며, 따라서 성인과 유사한 작업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직종에 있어서의 3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 전단지 돌리기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9.2%에서 2차년도에는 66%로 감소하다

가 3차년도에는 무려 29.3%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IV-4>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직종

조사시기 \ 직종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전단지	404(79.2)	237(66.0)	111(29.3)
기 타	106(20.8)	122(34.0)	268(70.7)
계	510(100.0)	359(100.0)	379(100.0)

이는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이 전체의 1/3 수준에 머무른 반면, 기타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의 비율이 급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기타 직종의 경우 특성상 중학생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고용주들이 중학생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상당 수준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5>는 조사 시기별로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83.7%가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21일 이하로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3차년도에는 이 수치가 59.1%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게다가 1달 이상 일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도 1차년도에는 4.5%에 불과하였지만, 3차년도에는 18.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표 IV-3>의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의 변화 추이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참여한 아르바이트 횟수는 감소하는 반면, 일단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아르바이트가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해 감을 의미한다. 즉 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비

교적 오랜 기간 그 일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단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소수의 아르바이트에서 장기간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영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즉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 그 일로부터 영향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지만, 적은 수의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표 IV-5>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

조사시기 지속 기간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1일~7일	364(71.5)	241(66.2)	157(41.4)
8일~14일	31(6.1)	27(7.4)	32(8.5)
15일~21일	31(6.1)	25(6.9)	35(9.2)
22일~30일	60(11.8)	55(15.1)	85(22.4)
31일 이상	23(4.5)	16(4.4)	70(18.5)
계	509(100.0)	364(100.0)	379(100.0)

<표 IV-6>은 조사시기별 주간 근무일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화 추이는 앞의 <표 IV-3>과 <표 IV-5>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1차 시기의 경우 주간 근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3.3%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3차년도에는 44.6%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7일 모두 일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1차년도의 9.1%에서 3차년도에는 21.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한 주일에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5명에 1명 정

도는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주간 근무일수

조사시기 근무일수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1일	224(45.4)	144(39.6)	90(23.7)
2일	75(15.2)	50(13.7)	61(16.1)
3일	64(13.0)	47(12.9)	41(10.8)
4일	15(3.0)	19(5.2)	18(4.7)
5일	33(6.7)	30(8.2)	50(13.2)
6일	37(7.5)	19(5.2)	37(9.8)
7일	45(9.1)	55(15.1)	82(21.6)
계	493(100.0)	364(100.0)	379(100.0)

<표 IV-7>은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시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차년도에는 32.5%였으나 3차년도에는 무려 77%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주말의 근무 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6>과 <표 IV-7>의 결과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대학 진학 등과 관련하여 학업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성향과 더불어 미래 계획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지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7>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 조사시기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1시간	58(11.4)	33(9.1)	8(2.1)
2시간	144(28.2)	85(23.4)	39(10.3)
3시간	142(27.8)	92(25.3)	40(10.6)
4시간	64(12.5)	42(11.6)	54(14.2)
5시간	46(9.0)	45(12.4)	68(17.9)
6시간 이상	56(11.0)	66(18.2)	170(44.9)
계	510(100.0)	363(100.0)	379(100.0)

<표 IV-8>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시간당 보수

시간당 보수 \ 조사시기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 1000원	51(11.6)	17(4.7)	8(2.1)
1001원 ~ 2000원	130(29.6)	74(20.5)	44(11.8)
2001원 ~ 3000원	110(25.1)	114(31.6)	159(42.7)
3001원 ~ 4000원	38(8.7)	36(10.0)	75(20.1)
4001원 ~ 5000원	86(19.6)	46(12.7)	32(8.6)
5001원 ~	24(5.4)	74(20.5)	55(14.7)
계	502(100.0)	361(100.0)	373(100.0)

<표 IV-8>에 따르면, 1차시기의 경우 2,001원 이상 3,000원 이하의 시간당 보수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29.6%였으나 3차시기에는 42.7%로 증가하였다. 2,000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도 1차시기에는 41.2%에 달하였으나, 3차시기에는 13.9%로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학생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의 성장함에 따라 지나치게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직종에 일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시간당 3,000을 넘게 받는 학생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취업기간 6개월 이내의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이 2,790원인 상황(노동부 고시 제2005-18호)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시간당 보수가 현재보다 현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지만, 시간당 3,000원 내외의 보수를 받는 학생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9>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조사시기	1차시기 (백분율)	2차시기 (백분율)	3차시기 (백분율)
이유			
생활비를 벌기 위해	13(2.5)	12(3.3)	16(4.2)
학비를 벌기 위해	3(0.6)	2(0.6)	6(1.6)
용돈이 부족해서	249(48.8)	208(57.3)	207(54.6)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19(3.7)	19(5.2)	31(8.2)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129(25.3)	64(17.6)	69(18.2)
주위의 권유로	74(14.5)	42(11.6)	39(10.3)
친구를 돕기 위해	11(2.2)	8(2.2)	5(1.3)
기타	12(2.4)	8(2.2)	6(1.6)
계	510(100.0)	363(100.0)	379(100.0)

<표 IV-9>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논의된 아르바이트 관련 경험들의 변화 추이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3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1차시기의 25.3%에서 3차시기의 18.2%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50% 내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주로 용돈을 버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은 2차시기와 3차시기에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겪게 된

학교생활의 어려움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는데 표에는 각 문항의 평균값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2차시기와 비교하여 3차시기에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거나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 정도의 변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는 숙제를 하는 것이나 성적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표 IV-6>과 <표 IV-7>에 나타난 결과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 일수와 일일 근무 시간이 증가한 학교생활 뿐 아니라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IV-10>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과의 관계(평균)

조사시기	2차시기	3차시기
학교 생활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1.84(1.17)	2.15(1.24)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한 적이 있다	1.74(1.07)	1.99(1.16)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1.65(0.95)	1.89(1.08)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2.03(1.28)	2.40(1.33)

1) ()안은 표준편차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 시기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27.8%에 달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는 3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은 꾸준히 증가하여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진학함에 따라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단기간 하던 유형에서 소수의 아르바이트를 장기간에 걸쳐 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종의 경우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였는데 1차년도에

80%에 달하던 전단지 돌리기가 3차년도에는 30%로 줄어들었으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직종이 성인의 직업과 유사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또한 아르바이트 주간 근무 일수 및 일일 근무시간은 고등학교 시기로 감에 따라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일부 학생의 경우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자신들도 학교생활은 물론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

본 절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변수로는 경험 여부, 직종, 지속기간, 주당 근무일수, 일일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하여 성별, 가계 소득, 부모의 교육정도, 흡연 및 음주, 자아 존중감 및 자신감과의 관계를 교차분석, t-검증, 상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표 IV-11>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성별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차시기의 경우 남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14.7%인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비율은 14.9%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3차시기에도 이러한 경향은 3차시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남학생들 가운데에는 12.0%가, 여학생들 가운데에는 12.3%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데, 이는 미국의 아르바이트 직종의 특성에서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여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이 돌보기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현상이 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정 직종에서 여학생이나 남학생을 선호하는 경우는 있지만, 미국의 아이 돌보기처럼 여학생 혹은 남학생에게만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직종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표 IV-11>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성별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W	NW	계	W	NW	계	W	NW	계
남자	253 (14.7)	1,472 (85.3)	1,725	166 (10.4)	1,428 (89.6)	1,594	188 (12.0)	1,382 (88.0)	1,570
여자	257 (14.9)	1,467 (85.1)	1,724	198 (12.4)	1,396 (87.6)	1,594	191 (12.3)	1,359 (87.7)	1,550
계	510	2,939	3,449	364	2,824	3,188	379	2,741	3,120
χ^2	.040			3.176 ^a			.089		

1) W =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NW =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2) a : $p < .10$

3) ()안은 백분율임

<표 IV-12> 아르바이트 경험과 가계 소득의 차이에 대한 t-검증

소득	경험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1차시기	있다	472	280.44	225.04	-2.091*
	없다	2,769	303.02	215.35	
2차시기	있다	340	264.81	160.58	-2.789**
	없다	2,665	297.92	211.22	
3차시기	있다	349	253.38	169.92	-4.163***
	없다	2,588	299.18	195.84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2>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가계 소득은 그렇지 않은 학생의 가계 소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3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차시기로 갈수록 두 집단의 가계소득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시기의 두 집단의 차이는 22.58이었으나 3차시기에는 그 차이가 46으로 나타났다.

<표 IV-13>과 <표 IV-14>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부모의 교육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13>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버지 교육정도의 차이에 대한 t-검증

부 교육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1차시기	있다	498	4.48	1.33	-4.849***
	없다	2,882	4.78	1.30	
2차시기	있다	351	4.49	1.23	-3.754***
	없다	2,773	4.75	1.30	
3차시기	있다	359	4.33	1.23	-6.124***
	없다	2,697	4.76	1.29	

1) *** p < .001

<표 IV-14> 아르바이트 경험과 어머니 교육정도의 차이에 대한 t-검증

모 교육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1차시기	있다	492	4.01	1.05	-5.377***
	없다	2,865	4.29	1.11	
2차시기	있다	348	3.98	1.09	-4.303***
	없다	2,775	4.25	1.09	
3차시기	있다	361	3.93	1.04	-5.425***
	없다	2,674	4.25	1.09	

1) *** p < .001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 모두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부모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부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의 평균을 단순 비교한 것이지만, 적어도 교육정도가 높은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는 학업 중시 풍토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15>는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 경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차시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26.5%가 흡연 경험이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차년도와 3차년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흡연을 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15>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 경험과의 관계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W	NW	계	W	NW	계	W	NW	계
흡연									
있음	135 (26.5)	323 (11.0)	458	95 (26.1)	239 (8.5)	334	110 (29.0)	247 (9.0)	357
없음	375 (73.5)	2,616 (89.0)	2,991	269 (73.9)	2,585 (91.5)	2,854	269 (71.0)	2,494 (91.0)	2,763
계	510	2,939	3,449	364	2,824	3,188	379	2,741	3,120
χ^2	90.44***			106.92***			131.60***		

1) W =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NW =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2) *** : $p < .001$

3) ()안은 백분율임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 경험과의 관계는 음주 경험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IV-16>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 보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흡연과 비교하여 볼 때,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3차년도에는 절반 이상이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3명 중 1명꼴로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6> 아르바이트 경험과 음주 경험과의 관계

음주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W	NW	계	W	NW	계	W	NW	계
있음	255 (50.0)	802 (27.3)	1,057	187 (51.4)	738 (26.1)	925	225 (59.4)	913 (33.3)	1,138
없음	255 (50.0)	2,137 (72.7)	2,392	177 (48.6)	2,086 (73.9)	2,263	154 (40.6)	1,828 (66.7)	1,982
계	510	2,939	3,449	364	2,824	3,188	379	2,741	3,120
χ^2	105.47***			99.74***			97.57***		

1) W =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NW =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2) *** : $p < .001$

3) ()안은 백분율임

<표 IV-15>와 <표 IV-16>의 결과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음주 및 흡연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계성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IV-17>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1차시기	있다	510	18.196	3.90	-5.062***
	없다	2,934	19.101	3.69	
2차시기	있다	364	18.566	3.69	-5.604***
	없다	2,823	19.736	3.76	
3차시기	있다	378	19.259	3.54	-3.734***
	없다	2,739	20.001	3.63	

1) *** $p < .001$

<표 IV-17>은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차시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2차시기 및 3차시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8>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신감

자신감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1차시기	있다	510	10.057	2.36	-3.717***
	없다	2,938	10.450	2.17	
2차시기	있다	364	10.028	2.37	-3.563***
	없다	2,821	10.469	2.20	
3차시기	있다	379	10.359	2.17	-2.003*
	없다	2,740	10.590	2.09	

1) * p < .01; *** p < .001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관찰된 관계는 자신감과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8>에 따르면, 3차례의 조사 시기 모두에 걸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자신감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심리적 요인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변량 분석(bivariate analysis)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다른 관련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에도 이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가 모두가 제3의 변수와의 공통된 관련성에 기인한다면, 두 요인간의 관계는 더 이상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요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은 뒤에 제시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과의 관계

여기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V-19>에 따르면, 1차년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남학생 가운데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돌리기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82.9%였던 반면, 전단지 돌리기를 한 여학생은 75.5%로 전단지 돌리기를 한 남학생들의 비율이 여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2차년도에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3차년도에는 그 양상이 바뀌어 전단지 돌리기를 한 남학생의 비율이 23%로 감소한 반면, 여학생들이 전단지 돌리기를 한 비율은 35.6%로 오히려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직종의 변화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단지 돌리기 이외의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 비율이 1차년도의 17.1%에서 77%로 급증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24.5%에서 64.4%로 증가하였다. 여학생의 아르바이트 직종의 변화도 결코 미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변화의 정도는 남학생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생들이 전단지 돌리기에서 그 외의 직종으로의 전이가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9> 아르바이트 직종과 성별과의 관계

성별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전단지	기타	계	전단지	기타	계	전단지	기타	계
남자	191 (82.9)	62 (17.1)	253	113 (63.3)	50 (36.7)	163	67 (23.0)	121 (77.0)	188
여자	213 (75.5)	44 (24.5)	257	124 (69.3)	72 (30.7)	196	44 (35.6)	147 (64.4)	191
계	404	106	510	237	122	359	111	268	379
χ^2	4.22*			1.46			7.27**		

1) * p < .05; ** p < .01

2) ()안은 백분율임

<표 IV-20> 아르바이트 직종과 흡연 경험과의 관계

흡연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전단지	기타	계	전단지	기타	계	전단지	기타	계
있다	108 (26.7)	27 (25.5)	135	49 (20.7)	44 (36.1)	93	14 (12.6)	96 (35.8)	110
없다	296 (73.3)	79 (74.5)	375	188 (79.3)	78 (63.9)	266	97 (87.4)	172 (64.2)	269
계	404	106	510	237	122	359	111	268	379
χ^2	.07			9.94**			20.52***		

1) ** p < .01; *** p < .001

2) ()안은 백분율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직종과 가계 소득 및 부모의 교육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 집단과 그렇지 않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가계 소득과 부모의 교육정도의 평균치를 t-검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간의 차이는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직종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직종과 흡연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차시기에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들 중에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7%이고 여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 중에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이 25.5%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의 흡연 경험의 차이는 2차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3차년도에는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의 흡연 비율이 12.6%로 감소한 반면, 기타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 가운데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5.8%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아르바이트 직종과 음주 경험과의 관계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전단지	기타	계	전단지	기타	계	전단지	기타	계
음주 있다	197 (48.8)	58 (54.7)	255	105 (44.3)	78 (63.9)	183	49 (44.1)	176 (65.7)	225
없다	207 (51.2)	48 (45.3)	255	132 (55.7)	44 (36.1)	176	62 (55.9)	92 (34.3)	154
계	404	106	510	237	122	359	111	268	379
χ^2	1.19			12.42 ^{***}			15.08 ^{***}		

1) ^{***} p < .001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직종과 흡연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처분 가능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는 점이 청소년의 흡연을 촉진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성인과 빈곤한 접촉을 하며 성인과 비슷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성인의 행위를 모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관찰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직종과 흡연과의 관계는 음주 경험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IV-21> 참조). 1차시기에는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들과 기타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의 음주 경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차시기에는 약 20%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전단지 돌리기 이외의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은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음주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 직종과 자아 존중감 및 자신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단지 돌리기를 한 집단과 기타의 아르바이트를 한 집단의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의 평균 차이를 t-검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관련 경험 중에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아르바이트 횟수와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 횟수와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은 학생의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흡연 및 음주,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과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는 2차시기에서 흡연 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1차시기와 3차시기에는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아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와의 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주당 근무일수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한 단순상관분석과 t-검증을 시도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과 주당 근무일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시도한 결과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의 주당 근무일수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와 가계 소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두 변수간의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시기에는 별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차시기에는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r=-.164(p < .01)$, 3차시기에는 $r=-.124(p < .05)$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 소득이 적을수록 주당 근무일수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관찰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가계 소득과의 관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와 부모의 교육정도와는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IV-22>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와 흡연 경험과의 관계

주당근무 일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1차시기	있다	128	3.04	2.06	2.194*
	없다	365	2.57	2.07	
2차시기	있다	95	2.84	2.15	-1.051
	없다	269	3.12	2.27	
3차시기	있다	110	4.59	2.26	4.164***
	없다	269	3.52	2.26	

1) * $p < .05$; *** $p < .001$

<표 IV-22>는 주당 근무일수와 흡연 경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1차시기에는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주당 근무일수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2차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3차시기에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주당 근무일수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거의 1일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성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당 근무일수와 음주 경험과의 관계는 흡연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3>에 따르면,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주당 일을 한 일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관찰되었으나 3차년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3차년도에는 음주 경험에 따른 주당 근무일수의 차이가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 두 집단의 주당 근무일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표 IV-23>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와 음주 경험과의 관계

주당근무 일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1차시기	있다	246	2.96	2.13	2.897**
	없다	247	2.43	1.99	
2차시기	있다	187	3.29	2.32	2.114*
	없다	177	2.80	2.12	
3차시기	있다	225	3.97	2.29	1.422
	없다	154	3.63	2.33	

1) * $p < .05$; ** $p < .0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와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는 관찰되지 않아 주당 근무일수와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시간과의 관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일 근무시간은 아르바이트의 주요 특성으로서의 노동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일일 근무시간과 제반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IV-24> 아르바이트 일일근무시간과 성별과의 관계

일일 근무시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1차시기	남자	253	3.32	2.34	-.671
	여자	257	3.46	2.07	
2차시기	남자	166	3.50	3.01	-3.220**
	여자	197	4.51	2.96	
3차시기	남자	188	5.84	3.19	-.931
	여자	191	6.15	3.32	

1) ** $p < .01$

<표 IV-25> 일일근무시간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SES)과의 상관관계

SES	조사시기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가구 소득		-.078	-.112*
아버지의 교육정도		-.106*	-.123*	-.103
어머니의 교육정도		-.065	-.126*	-.137**

<표 IV-24>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노동강도의 차이는 2차시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한 여학생들의 일일 근무시간이 남학생보다 거의 한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1차시기와 3차시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 시기 모두 여학생의 일일 근무시간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5>는 일일 근무시간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일 근무시간은 2차년도에 가구 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일일 근무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록 1차시기와 3차시기에는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관계의 방향은 2차시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6> 아르바이트 일일근무시간과 흡연 경험과의 관계

일일 근무시간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1차시기	있다	135	3.60	2.18	1.289
	없다	375	3.31	2.21	
2차시기	있다	95	5.02	3.27	3.478 **
	없다	268	3.71	2.86	
3차시기	있다	110	7.00	3.62	3.904 ***
	없다	269	5.59	3.01	

1) ** p < 0.01; *** p < .001

일일 근무시간과 부모의 교육정도와의 관계도 가구 소득과의 관계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일일 근무시간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의 관계와 연관지어 고찰하면, 교육정도가 높은 부모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는 자녀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제반 경험과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은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학업에 우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27> 아르바이트 일일근무시간과 음주 경험과의 관계

일일 근무시간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1차시기	있다	255	3.53	2.34	1.467
	없다	255	3.25	2.06	
2차시기	있다	186	4.63	3.03	3.817***
	없다	177	3.44	2.90	
3차시기	있다	225	6.55	3.28	4.083***
	없다	154	5.19	3.06	

1) *** p < .001

<표 IV-26>과 <표 IV-27>은 일일 근무시간과 흡연 및 음주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흡연의 경우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일일 근무시간의 차이는 1차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2차년도부터는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되어 3차년도에는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6> 참조).

이러한 경향은 음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7>에 따르면,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일일 근무시간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근무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시기를 제외하고 2차시기와 3차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시간이 경과할수록 음주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일일 근무시간의 차이는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수와 자아 존중감 및 자신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일일 근무시간은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인에 대한 다변량분석

앞 절에서의 나타난 아르바이트 경험과 제반 변인들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두 변수와 공통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비로소 두 변수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선 2차시기 및 3차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음주 및 흡연 경험과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에 대한 아르바이트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결정 요인에 관한 다변량분석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심리 상태에 대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지니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떤 성향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어떤 요인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 변수는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의 결정 요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시간적 우선성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1차시기에 측정된 변수들을 회귀식에 투입하였고, 마찬가지로 3차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2차시기에 측정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년도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첫 번째 모형에서는 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포함하지 않았고, 두 번째 모형에는 첫 번째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과 더불어 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1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2차년도의 흡연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에 영향을 동시에 준다면, 첫 번째 모형에서 흡연 경험이 아르바이트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두 번째 모형은 1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제함으로써 2차년도의 흡연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된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별, 가구 소득,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 반석차,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자아존중감, 자신감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1로, 여학생을 0으로 코딩하였고, 흡연 경험과 음주 경험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V-28> 2차시기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2,528)

변 수	모형 1	모형 2
상수	ns	-1.386(.502) ^{***}
성별	ns	ns
소득	-.001(.000) ^a	-.001(.000) ^a
부교육	ns	ns
모교육	-.158(.085) ^a	ns
반석차	.002(.001) ^{***}	.002(.001) ^{***}
흡연 경험(1차년도)	.573(.173) ^{**}	.490(.178) ^{**}
음주 경험(1차년도)	.500(.149) ^{**}	.341(.154) ^{**}
자아존중감(1차년도)	-.062(.019) ^{**}	-.055(.020) ^{**}
자신감(1차년도)	ns	ns
아르바이트 경험(1차년도)	-	1.440(.145) ^{***}
-2Log-Likelihood	1655.87	1564.208
Cox와 Snell의 R ²	.042	.076
Nagelkerke의 R ²	.083	.151

1) ()안은 표준오차임

2) ns p > .10; ^a p < .10; ^{**} p < .01; ^{***} p < .001

<표 IV-29> 3차시기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2,528)

변 수	모형 1	모형 2
상수	-1.601 (.537) ^{**}	-2.108 (.555) ^{***}
성별	ns	ns
소득	ns	ns
부교육	ns	ns
모교육	ns	ns
반석차	.003 (.001) ^{***}	.003 (.001) ^{***}
흡연 경험(2차년도)	.713 (.204) ^{***}	.615 (.211) ^{**}
음주 경험(2차년도)	.636 (.163) ^{***}	.529 (.168) ^{**}
자아존중감(2차년도)	ns	ns
자신감(2차년도)	ns	ns
아르바이트 경험(2차년도)	-	1.420 (.172) ^{***}
-2Log-Likelihood	1402.620	1340.882
Cox와 Snell의 R ²	.046	.072
Nagelkerke의 R ²	.092	.145

1) ()안은 표준오차임

2) ns p > .10; ^{**} p < .01; ^{***} p < .001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IV-28>에, 3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IV-29>에 제시하였다.

<표 IV-28>에 따르면, 1차시기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에서는 반석차, 1차시기의 흡연 및 음주경험, 자아존중감이 2차 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전년도에 흡연과 음주를 한 경험이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p=.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1차시기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을 통제한 모형 2의 결과도 모형 1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1차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반석차, 흡연 및 음주 경험, 자아존중감은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1차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2차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IV-29>에 나타난 3차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결과도 <표 IV-28>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년도의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전년도에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제한 모형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반석차와 음주 및 흡연 경험은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학업성적이 낮고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분석에 투입된 설명변수들이 전년도에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게 되

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는 이미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낮은 학업 성적으로 인하여 학교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이미 흡연과 음주 등의 문제 행동을 경험한 학생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에 관한 다변량분석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흡연 및 음주 경험,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3차시기에 측정된 흡연, 음주, 자아존중감,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흡연 및 음주 경험은 범주변수인 관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의 경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3차시기에 측정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아르바이트 직종, 지속기간, 주당 근무일수, 일일 근무시간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성별, 가구 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반석차(3차시기)를 활용하였다. 특히 전년도에 측정된 종속변수의 값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전년도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표 IV-30> 흡연에 대한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N=2,189)

변 수	모형 1	모형 2
상수	-3.047 (.354) ^{***}	-3.532 (.406) ^{***}
성별	.877 (.155) ^{***}	1.039 (.175) ^{***}
소득	ns	ns
부교육	ns	ns
모교육	ns	ns
반석차	.004 (.001) ^{***}	.003 (.001) ^{***}
아르바이트 경험(3차시기)	1.036 (.354) ^{***}	.729 (.204) ^{***}
흡연 경험(2차시기)	-	2.774 (.178) ^{***}
-2Log-Likelihood	1350.138	1109.119
Cox와 Snell의 R ²	.056	.154
Nagelkerke의 R ²	.114	.314

1) ()안은 표준오차임

2) ns p > .10; *** p < .001

<표 IV-30>은 흡연 경험에 대한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년도에 측정된 흡연 경험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에서는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은 흡연을 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것은 전년도의 흡연 경험을 통제된 모형 2의 결과도 모형 1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2차시기의 흡연 경험을 통제된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흡연에 주는 영향의 크기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흡연 경험이 중독성이 매우 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은 이러한 중독성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Finch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7)에 따르면,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 자체는 흡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표 IV-30>의 결과는 아르바이트의 내용과는 별도로 아르바

이트 경험 자체도 흡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의 경험 자체도 흡연 경험을 설명하는데 의미 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음주 경험에 주는 영향은 흡연 경험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1>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년도의 음주 경험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독립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학생일수록 음주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1> 음주에 대한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N=2,189)

변 수	모형 1	모형 2
상수	-.563 (.216)**	-.975 (.230)***
성별	ns	ns
소득	ns	ns
부교육	ns	ns
모교육	ns	ns
반석차	.002 (.000)***	.002 (.000)***
아르바이트 경험(3차시기)	.839 (.141)***	.632 (.150)***
음주 경험(2차시기)	-	1.463 (.103)***
-2Log-Likelihood	2788.485	2578.237
Cox와 Snell의 R ²	.03	.119
Nagelkerke의 R ²	.042	.164

1) ()안은 표준오차임

2) ns p > .10;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는 흡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inch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7)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에 주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아

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관찰된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서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과의 관계는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표 IV-32> 흡연에 대한 아르바이트 직종의 영향

변 수	모형 1	모형 2
상수	-.192 (.838) [*]	-2.710 (.983) ^{**}
성별	1.164 (.380) ^{**}	1.426 (.438) ^{**}
소득	-.002 (.001) ^a	-.003 (.002) [*]
부교육	ns	ns
모교육	ns	ns
반석차	.003 (.002) ^a	.003 (.002) ^a
아르바이트 직종(3차시기)	-1.633 (.471) ^{**}	-1.581 (.510) ^{**}
흡연 경험(2차시기)	-	2.366 (.467) ^{***}
N	201	197
-2Log-Likelihood	196.92	162.04
Cox와 Snell의 R ²	.133	.25
Nagelkerke의 R ²	.197	.373

1) ()안은 표준오차임

2) ns p > .10; a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3> 음주에 대한 아르바이트 직종의 영향

변 수	모형 1	모형 2
상수	ns	ns
성별	ns	ns
소득	ns	ns
부교육	ns	ns
모교육	ns	ns
반석차	ns	ns
아르바이트 직종(3차시기)	-.750 (.318) [*]	-.704 (.331) [*]
음주 경험(2차시기)	-	1.174 (.325) ^{***}
N	201	197
-2Log-Likelihood	266.856	246.848
Cox와 Snell의 R ²	.042	.111
Nagelkerke의 R ²	.057	.148

1) ()안은 표준오차임

2) ns p > .10; * p < .05; *** p < .001

<표 IV-32>와 <표 IV-33>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직종이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경험에 주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종을 범주변수로 전환하여 전단지 돌리기는 1로, 기타 직종은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아르바이트 직종이 흡연과 음주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단지 돌리기가 아닌 기타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이 흡연과 음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전년도에 측정한 종속변수 값을 투입한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직종이 흡연과 음주에 대하여 독립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앞의 이변량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 밖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흡연을 할 확률이 높았고, 가구 소득과 반석차도 흡연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직종과 전년도의 음주 경험 외에는 분석에 투입된 다른 변수들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과 주당 근무일수가 흡연, 음주, 자아존중감, 자신감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과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와 지속기간은 4개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일일 근무시간이 4개의 종속변수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흡연 및 음주 경험에 대한 결과는 <표 IV-34> 및 <표 IV-3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4> 흡연에 대한 일일 근무시간의 영향

변 수	모형 1	모형 2
상수	-2.856 (.984)**	-3.974 (1.139)**
성별	1.114 (.371)**	1.413 (.433)**
소득	ns	ns
부교육	ns	ns
모교육	ns	ns
반석차	ns	ns
일일 근무시간(3차시기)	.103 (.053) ^a	.136 (.062) [*]
흡연 경험(2차시기)	-	2.450 (.462) ^{***}
N	201	197
-2Log-Likelihood	208.12	168.79
Cox와 Snell의 R ²	.083	.224
Nagelkerke의 R ²	.123	.334

1) ()안은 표준오차임

2) ns p > .10; a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5> 음주에 대한 일일 근무시간의 영향

변 수	회귀식 1	회귀식 2
상수	ns	ns
성별	ns	.572 (.325) ^a
소득	ns	ns
부교육	ns	ns
모교육	ns	ns
반석차	ns	ns
일일 근무시간(3차시기)	.103 (.048) [*]	.113 (.052) [*]
음주 경험(2차시기)	-	1.198 (.325) ^{***}
N	201	197
-2Log-Likelihood	267.75	246.37
Cox와 Snell의 R ²	.038	.113
Nagelkerke의 R ²	.051	.151

1) ()안은 표준오차임

2) ns p > .10; a p < .10; * p < .05; *** p < .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일일 근무시간이 흡연 및 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이 주는 영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일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음주 경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일 근무시간이 흡연과 음주 경험에 주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일일 근무시간이 주는 영향은 전년도의 흡연 또는 음주 경험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에 머물러 전년도의 흡연이나 음주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시간이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일일 근무시간이 이 두 가지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일 근무시간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학업성취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영향에 대한 중단분석

1) 아르바이트에 미치는 학업성취의 효과분석

이 절에서는 학업성취에 초점을 맞추어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표 IV-36>과 <표 IV-37>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36>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아르바이트 경험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IV-37>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르바이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모형 1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만을 포함한 모형이며 모형 2는 성별, 거주지역 등 인구학적 변수들과 한부모 가족 유무, 아버지의 교육년수, 어머니의 교육년수, 사교육비, 아버지의 직업, 형제자매수 등 가족배경 변수들을 포함한 모형이다. 모형 3은 모형 2의 변수들에 이전년도의 학업성취 관련 변수들을, 모형 4는 모형 3에 흡연, 음주 경험 등 지위비행과 관련된 변수들을 추가한 것이다.

먼저 <표 IV-36>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4의 결과에서 중2 때 아르바이트를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중3이 되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참여할 가능성은 4.2배($\approx \exp[1.428]$)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변인들과 가족배경 변인들을 살펴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배경 변인들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는 통념이 현재는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율은 33.4%로 나타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2000년에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들은 29.2%(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 30.5%(YMCA, 2000)

등 30% 내외의 경험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5년간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3명 중 1명꼴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이상 가난한 학생들만의 현상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36> 중 3 때 아르바이트 경험 요인 분석(중2→중3)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아르바이트 경험(중2)	1.63 ^{***}	1.64 ^{***}	1.55 ^{***}	1.43 ^{***}
여성		.14	.11	.03
농촌거주		-.07	-.06	-.07
결손가정 유무		-.05	-.17	-.17
아버지 교육년수		-.01	.01	.00
어머니 교육년수		-.05	-.03	-.04
사교육비		-.00	.00	-.01
아버지 직업_관리전문		-.01	.02	.00
형제자매수		.05	.07	.07
학업성적(중2)			-.28 ^{***}	-.24 ^{***}
교내경시대회(중2)			-.11	-.13
개인학습시간(중2)			-.01	-.01
흡연경험(중2)				.48 ^{**}
음주경험(중2)				.40 ^{**}
절편	-2.44 ^{***}	-1.75 ^{***}	-1.41 ^{***}	-1.61 ^{***}
사례수	3,188	2,997	2,923	2,923
-2LL	2102.68	1916.76	1839.58	1814.05
Pseudo R ² (Nagelkerke)	.10	.11	.13	.15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업성취 관련 변인들 중에서 이전년도의 학업 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모형 4에서 학업성적이 한 단계 올라가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0.8배(=exp[-.239])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높은 학생들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 밖의 흡연이나 음주 등의 지위비행 변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2 때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중3 때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1.6배(=exp[.476])나 높고 음주의 경우도 1.5배(=exp[.402])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7> 고 1 때 아르바이트 경험 요인 분석(중3→고1)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아르바이트 경험(중2)	.56 ^{***}	.56 ^{**}	.52 ^{**}	.44 [*]
아르바이트 경험(중3)	1.64 ^{***}	1.67 ^{***}	1.57 ^{***}	1.48 ^{***}
여성		-.14	-.12	-.16
농촌거주		.23	.35	.39
결손가정 유무		.48	.40	.48
아버지 교육년수		-.03	-.01	-.02
어머니 교육년수		-.02	.01	.01
사교육비		-.01 [*]	-.01	-.01
아버지 직업_관리전문		-.08	.04	.03
형제자매수		-.09	-.04	-.02
학업성적(중3)			-.09 ^{***}	-.08 ^{**}
교내경시대회(중3)			-.48 ^{**}	-.48 ^{**}
개인학습시간(중3)			.00	.00
흡연경험(중3)				.23
음주경험(중3)				.44 [*]
절편	-2.42 ^{***}	-1.64 ^{**}	-.71	-.93
사례수	2956	2145	2107	2107
-2LL	1981.62	1221.47	1166.89	1157.20
Pseudo R ² (Nagelkerke)	.11	.12	.15	.15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다음으로 <표 IV-37>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36>과 마찬가지로 이전 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가 당해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모든 요인을 통제하고도 중 2 때의 경험이 있을 경우 없는 경우보다 고1 때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가능성은 1.6배(=exp[.444])나 높으며, 중 3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경우 고1 때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가능성은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보다 4.4배(=

exp[1.478])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학적 변수들과 가족배경 변수들은 <표 IV-36>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학업성취 관련 변인들 중에서 이전년도의 학업성적이 높거나 교내경시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이나 음주 등의 지위비행 변인들 중에서는 음주경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분석

<표 IV-38>과 <표 IV-39>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38>은 중3 때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효과를, <표 IV-39>는 고1 때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구성은 아르바이트 경험 모형과 동일하게 아르바이트 경험 변수만을 포함한 모형 1에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 4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아르바이트 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8>과 <표 IV-39>에서 이전년도와 당해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8>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모형 1을 통해 확인해 보면 3%(결정계수값=.031)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 IV-39>에서의 설명력은 1%(결정계수값=.014)로 매우 낮다.

모든 요인들을 통제한 모형 4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표 IV-38>의 중3 때의 학업성적의 경우 중2 때 아르바이트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해년도인 중3 때 아르바이트 경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효과는 특히 이전년도의 학업성적을 통제했을 때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아르바이트 참여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이 학생들이 진학 후 다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IV-38> 중 3 때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효과 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아르바이트 참여(중2)	-.84 ^{***}	-.53 ^{**}	-.02	-.07
아르바이트 참여(중3)	-1.77 ^{***}	-1.44 ^{***}	-.59 ^{***}	-.53 ^{**}
여성		-.58 ^{***}	-.28 ^{**}	-.28 ^{**}
농촌거주		.29	.30	.30
결손가정 유무		-1.27 ^{***}	-.57 [*]	-.57 [*]
아버지 교육년수		.23 ^{***}	.07 ^{**}	.07 ^{**}
어머니 교육년수		.14 ^{***}	.04	.04
사교육비		.02 ^{***}	.01 ^{**}	.01 ^{**}
아버지 직업_관리전문		.38	.20	.21
형제자매수		.28 ^{**}	.17 [*]	.17 [*]
학업성적(중2)			1.76 ^{***}	1.74 ^{***}
교내경시대회(중2)			.44 ^{***}	.44 ^{***}
개인학습시간(중2)			.03 ^{***}	.03 ^{***}
흡연경험(중2)				-.52 ^{**}
음주경험(중2)				-.01
절편	15.90 ^{***}	10.64 ^{***}	8.58 ^{***}	8.70 ^{***}
사례수	3178	2988	2914	2914
R ²	.03	.15	.53	.53
Adjusted-R ²	.03	.15	.53	.53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한편, 아르바이트 효과를 단기 효과(short-term effect)와 장기 효과(long-term effect)로 구분해 볼 때 중2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중3 아르바이트 경험만이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여준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IV-39> 고 1 때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효과 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아르바이트 경험(중2)	-.04	-.03	-.32	.09
아르바이트 경험(중3)	-.22*	-.22*	.06	.00
아르바이트 경험(고1)	-.43***	-.23*	-.02	.03
여성		-.22***	.15**	-.13*
농촌거주		-.02	-.11	-.12
결손가정 유무		.08	.19	.16
아버지 교육년수		.07***	.03*	.04*
어머니 교육년수		.02	-.01	-.00
사교육비		.01***	-.00**	.00**
아버지 직업_관리전문		-.01	-.05	-.05
형제자매수		.03	-.01	-.02
학업성적(중3)			.16***	.16***
교내경시대회(중3)			.19**	.19**
개인학습시간(중3)			.00	.00
휴연경험(중3)				-.02
음주경험(중3)				-.16*
절편	2.84	1.56	-.32	-.27
사례수	2918	2130	2092	2092
R ²	.02	.07	.25	.26
Adjusted-R ²	.01	.06	.25	.25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V-38>에서 고1 때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들을 통제한 모형 4에서 이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당해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 이는 이전년도의 학업성적 등 학업성취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두드러지며 고1 때 학업성적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3) 고교 진학 경로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효과 분석

<표 IV-40>은 고교 진학 경로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실업고 대신 인문고나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로 진학하는데 미치는 효과이다.

<표 IV-40> 고교 진학 경로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효과 분석

	인문고/실업고	특목·자사고/실업고
아르바이트 경험(중2)	-.22	-.09
아르바이트 경험(중3)	-.24	-.92
여성	.66**	.64
농촌거주	.15	-.22
결손가정 유무	.28	-18.74
아버지 교육년수	.16***	.32**
어머니 교육년수	.00	.10
사교육비	.01*	.02**
아버지 직업_관리전문	.35	.69
형제자매수	-.03	.09
학업성적(중3)	.43***	.60***
교내경시대회(중3)	.46*	.86
개인학습시간(중3)	.03	.05
흡연경험(중3)	-.29	.78
음주경험(중3)	.37	-.16
절편	-7.61***	-18.85***
사례수	1309	
-2LL	984.99	
Pseudo R ² (Nagelkerke)	.43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V-40>에서 고교 진학 경로에 미친 아르바이트 경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곧, 중3 학생들이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을 낮추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진학경로가 바뀔 만큼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 요약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변화 추이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3년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과 관련하여 1차년도에는 전체 응답자의 14.8%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수치는 2차년도에는 11.4%, 3차년도에는 12.1%에 달하였다. 3년간에 걸쳐 매 해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9명으로 3년의 자료 수집 기간에 모두 응답한 3,012명 가운데 1.9%였으며, 적어도 한 해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27명으로 27.8%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편화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관련 경험 가운데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횟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회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6회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감소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이 21일 이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차년도의 83.7%에서 3차년도에는 59.1%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한 달 이상 일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차년도의 4.5%에서 3차년도에 18.5%로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한 해 동안 적은 수의 아르바이트에서 비교적 장기간 일을 하는 형태로 안정화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 특정 아르바

이트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지만, 적은 수의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하게 됨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 특성이나 작업 환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이러한 변화 유형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아르바이트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가장 특기할 만한 변화는 아르바이트 직종과 관련이 있다. 1차시기에 전단지 돌리기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79.2%였지만 3차시기에는 29.3%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전단지 돌리기와는 달리 서빙이나 배달 등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성인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처한 작업환경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되며, 성인과의 접촉 빈도도 급증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음주 등 성인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모방하게 될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들의 행동을 모방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주간 근무일수와 일일 근무시간의 변화 추이도 앞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차시기에 주간 근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는 23.3%였으나 3차시기에는 44.6%로 증가하였고, 7일 모두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1차년도의 9.1%에서 21.6%로 증가하였다. 일일 근무시간은 1차년도에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중 32.5%였으나 3차시기에는 77%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고등학생들이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3차시기의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5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일일 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단순히

학생의 아르바이트라고 간주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아르바이트에 전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기가 성인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업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사용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임금은 주로 3,000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차시기의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가운데 62.8%가 2,001원 이상 4,000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1차시기의 33.8%와 비교할 때 청소년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아르바이트 보수 수준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경험의 변화 양상과는 달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3년의 조사 기간 동안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즉 3년의 조사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 가운데 약 50% 정도가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취업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용돈을 버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는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르바이트의 학교생활에 대한 영향의 변화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거나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한 적이 있거나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3차년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었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을 성장해 감에 따라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와 더불어 제반 요인들과의 관계와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우선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경향은 조사 기간 내내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3년 모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가구 소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가구 소득이 3년 모두 더 낮은 것을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용돈 벌이로서의 아르바이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정도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의 부모들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교육정도가 높은 부모들은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잘 용납하지 않는 학업 중시 풍토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흡연 및 음주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흡연이나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학생의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직종과 성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서 직종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1차년도에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돌리기였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은 82.9%이고 여학생은 75.5%였으나 3차시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들 가운데 23%만이 전단지 돌리기를 한 반면, 여학생은 35.6%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생들이 전단지 돌리기에서 그 외의 직종으로의 전이가 더 극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직종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는 유의미한 관계

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흡연 및 음주와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는 아르바이트 직종과 흡연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3차년도에 이르러서는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들 가운데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12.6%인 반면, 기타 직종의 일을 한 학생들 중에서는 35.8%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 경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성인들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성인의 행위를 모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주당 근무일수와 흡연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3차시기에 이르러 흡연 경험에 따른 주당 근무일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음주와의 관계에서는 3차시기에 주당 근무일수의 차이가 상당히 좁혀지는 경향을 드러냈다.

일일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일일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 및 음주 경험에 따른 일일 근무시간도 2차년도와 3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상급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흡연 경험과 음주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일일 근무시간의 차이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아르바이트의 노동강도와 음주 및 흡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인에 대한 다변량분석

기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전년도에 측정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설정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독립변수의 시간적 우선성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낮고 전년도에 흡연 및 음주 경험이 있고 전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2차년도에는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으나, 3차

년도에는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까지도 통제된 상황에서 학업 성적이 낮고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낮은 학업 성적이나 문제 행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낮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제반 경험이 흡연 및 음주 경험과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선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 아르바이트 직종, 지속기간, 주당 근무일수 및 일일 근무시간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아르바이트 직종 및 노동강도는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경험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특히 전년도의 흡연이나 음주 경험을 통제된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 및 음주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선 전년도에 흡연이나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고,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과 전단지 돌리기 이외의 직종, 그리고 노동강도는 흡연과 음주에 전년도의 흡연이나 음주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영향에 대한 중단분석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학업성적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선행분석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에 미치는 학업성적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르바이트 경험에 부(-)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곧,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중3 때 학업성적에 대해서 중2 나 중3 때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3 때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다른 모든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아르바이트의 효과를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누어 볼 때 학업성적에 장기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고3 때의 학업성적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치는 효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만 확인되었으며 다른 영향 요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아르바이트가 학업성적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시기는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3 학생들은 실업고로 진학할지, 인문고나 특수목적고 혹은 자립형 사립고로 진학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나 선택보다는 학업성적 등의 학업성취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고교 진학경로에 미치는 아르바이트의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고교 진학경로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3 학생들이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2. 정책적 제언

1)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제공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중학교 때 전단지 돌리기 등 혼자 일을 하는 직종에 주로 종사하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전단지 돌리기 이외에 성인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성인과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앞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부터 긍정적인 직업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학생교육·고용프로그램(SEE)은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치 있는 일도 경험하고 일정한 보상도 주어지는 연방정부 및 그 산하 기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 이와 유사하게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공공기관의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위주의 정책보다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업소 중 모범적인 업소를 발굴하여 홍보해 청소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업소가 좋은 업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곳 캠페인’).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소들 중 상당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므로 업체 입장에서라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2) 아르바이트 직종 선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 및 진로지도를 통합

적으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에서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청소년 취업지원 및 직업상담을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워크넷」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동시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워크넷」을 통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청소년단체들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소년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 장시간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

이번 연구 결과 일부 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응답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비교적 적은 수의 아르바이트에서 장시간 일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노동의 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아르바이트에의 몰입으로 인해 학교생활 뿐 아니라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학업 성적이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면, 아르바이트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그 대안으로 아르바이트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학업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절한 진로지도와 더불어 직업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국민일보(2006). 청소년 알바 업소 위법 급증... 최저임금 미지급·초과근무 강요.
<http://www.kukminilbo.co.kr> (2006. 8. 31)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7집 제6호, pp. 115-144.
- 노동부(2005). 노동부 고시 제2005-18호. <http://www.molab.go.kr> (2006. 9. 8)
- 문성호(2003). 학생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83-103.
- 박병진(2005). 빈곤 혹은 꿈의 빈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포부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제 2권 pp 3-29
- 유성렬(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255-281.
- 이경상·유성렬·박창남(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서울:청소년개발원
- 이광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형하·이용교(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2호.
- YMCA(2000). 청소년아르바이트: 소비욕구의 분출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D'Amico, R. J.(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Vol 57, pp152-164
- Entwisle, D. R., K. L. Alexander & L. S. Olson.(2000). Early Work Histories of Urban You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pp279-297
- Finch, M. D., Mortimer, J. T. & Ryu, S.(1997) Transition into part-time work: Health risks and opportunities. In J. Schulenberg, J. L. Maggs, and K. Hurrelman (eds.), *Health risks and developmental transitions during adolescen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berger, E. & Steinberg, L. D.(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employment*. NY: Basic Books
- Kohn, M. L., & Schooler, C. (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J: Abex.
- Marsh, H. W. (1991).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haracter building or a subversion of academin goals? *Sociology of Education*, Vol. 64, pp. 172-189.
- Maurice, M., F. Sellier & J. J. Siverstre.(1982). *The Social Foundations of Industrial Power*. Cambridge, Mass: MIT Press
- Mortimer, J, T, & Finch, M. D. (1996). *Adolescents, Work, and Family*. CA: Sage Publications.
- Mortimer, J. T., Finch,M. D., Ryu, S., Shanahan, M. J., & Call, K. T. (1992).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2, pp.25-58.
- Mortimer, J. T., Finch, M. D., Shanahan, M., & Ryu, S. (1992).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2, pp. 25-57.
- Mortimer, J. T., Shanahan, MJ, & Ryu, S.(1994). *The effects of adolescent employment on school-related orientation and behavior*. In R. K. Silvereisen & E. Todt(Eds.), *Adolescence in context: The interplay of family, school, peers, and work in adjustment*. NY: Springer-Verlag pp304-326
-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Making Transitions Work*.
- Quick, K. J.,T. Z. Keith & J. T. Quick.(2001).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and Student Achievement: Longitudinal Analysis of National Dat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5(1), pp4-10
- Schulenberg, J. & Bachman, J. G.(1993). *Long hours on the job? Not so bad for some adolescence in some types of jobs: The quality of work and substance use, affect, and stres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Shanahan M.J., Mortimer, J. T., Finch, M. D., & Ryu, S.(1991). Adolescent work experience and depressive affe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4, pp.299-317
- Singh, K & M. Ozturk.(2000). Effect of Part-Time Work on High School Mathematics and Science Course Tak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4(2), pp.67-74.

Steel, L. (1991). Early work experience among white and non-white youth. *Youth and Society*, Vol. 22, pp. 419-447.

Steinberg, L. D. & Dornbusch, S. M.(1991). Negative correlates of part-time employment during adolescence: Replication and elab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pp. 304-313.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해당사항 없음.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현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중단 분석 / 김기현·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중단 분석 / 김기현·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상욱·김신영·박승호·유성렬·
임지연·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상욱·김신영·박승호·유성렬·
임지연·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
윤인진·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
김진호·임성택·전성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De-Ping Lu·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운숙·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조정문·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흥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
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홍승아·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끼·
마츠다 시게끼·무쿠오 아사코·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안드레아스헤네커·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윤옥경·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방은령·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황진구·한도희·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김영희·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윤숙

■ 용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윤숙·이혜연·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김경준·이춘화·김귀량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백해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백해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박영신·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임지연
-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김영지
-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이민희
-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오해섭·이장현·신순갑
-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서정아
-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김경준·최창욱·황진구·성운숙·오승근·양계민
-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김기현
-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임지연
-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장근영
-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김기현
-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김경준·이춘화·김귀랑
-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김경준·박병식·정익중
- 06-R44 청소년행복·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이경상·백해정
-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김신영·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 (6.21)
-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 연구수행 자료집

-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중단분석

인 쇄 2006년 12월 3일

발 행 2006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12-1(93330)